

정치인과 著述

과연 眞實과 良心의 목소리인가

池龍雨

경향신문 논설위원



정치인의 저술은
국민들로부터
그의 정치적 사상과 신념,
인간성 등을
간접적으로나마
짚어보게 해준다는
점에서 어떤 면으로는
권장할 만한 일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저술자의
솔직성과 저술내용의
진실성 여부에 있다.

“무엇을 말하고 싶다고 해서 쓸 수는 없다. 무엇인가 말할 것이 생겨야 쓸 수 있다.”(You don't write because you want to say something, you write because you've got something to say.)

「위대한 개츠비」를 쓴 미국작가 F.S 피츠제럴드가 남긴 이 말은 특히 자서전이나 회고록 또는 手記 등을 쓰려는 사람들이면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명언이 아닌가 한다. 그 점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정치인이라든가 역전의 장군, 입지전적인 실업가, 박애주의자, 혁명가 등이 훨씬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

정치가로서 노벨문학상까지 탄 영국의 윈스턴 처칠경은 그의 「회고록」 서문에 이렇게 적고 있다.

“나는 스스로 참혹한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그것도 한 국가의 중요한 지위에서 겪은 매우 드문 존재라고 생각한다. 제 1차 세계대전때는 그 직책이 가벼웠지만, 제 2차 세계대전때는 5년 동안 영국의 수상이었다. 이것만으로도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극히 권위를 가지고 서술할 수 있었다고 본다.”

과란만장했던 격동기에 大英帝國의 재상 자리를 지켰고 전후의 세계질서확립문제에까지 간여했던 처칠수상쯤 되면 할 이야기가 너무도 많을 것이며, 체험담만 추려도 대하소설이 되고 남을 만하다.

독재자 히틀러의 등장, 독일의 재무장, 제 2차 세계대전의 발발, 프랑스의 몰락과 독일의 영국공습, 일본의 진주만기습, 노르망디 상륙작전, 카이로 및 알타회담, 독일의 항복,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의 原爆투하, 일본의 패망 등등 그가 수상재임중에 겪은 체험들과 때로는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그 자신이 내려야 했던 중대결단 등이야말로 전무후무한 역사적 대기록들로서 회고록 저술을 위해서는 더할나위없는 소재들이다.

「처칠회고록」에는 못미치지만 1968년초부터 73년1월까지, 다시 말해서 닉슨대통령의 국가안보담당보좌관으로, 뒤에는 포드행정부의 국무장관으로 미국 외교정책을 한 몸에서 떠맡아 지구를 주름잡았던 헨리 키신저의 회고록도 세계의 수많은 외교·정치지망생들에게 읽힌 베스트 셀러들의 하나였다.

키신저는 “이 책은 나의 두 눈에 비친 역사, 내가 직접 보고 생각하고 행동한 사실들을 수록했다”고 그 서문에 적고 있다. 그 역시 EC121機사건, 美·中共접근, 수에즈위기, 닉슨의 중공방문, 워터게이트사건과 닉슨의 사임, 제 2단계 전략무기제한회담(SALT II) 등 큼직큼직한 역사적 흥겨거리들을 요리한 천부적 외교관으로서 소재가 무궁무진했다. 키신저는 “만약 회고록이 공평무사한 각도에서 씌어진다면 그 회고록은 후세의 史家들이 사건의 진상을 판단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순회함으로써 그의 회고록이 事實과 진실에 충실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정치의 계절, 著作의 계절

요즘 정치의 계절을 맞아, 특히 선거철을 앞두고, 우리 출판가에도 유명·무명의 정치인

들이 직접 펴낸 자전적 저술서들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음을 본다. 그 내용과 전개양식도 매우 다양하다. 자서전 및 회고록 형식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시국관·투쟁기록·수기·체험담·정치 에세이에 경제이론 등 각양각색이다. 개중에는 내노라하는 투쟁경력과 정치적 관록을 자랑하는 저명정치인이 쓴 저서가 있는가 하면, 아직 세상에 자서전류를 내놓기에는 여러모로 시기상조인 듯나기 정치인의 저서도 눈에 띈다. 또 남들이 다 쓰는데 나라고 못쓰나 하는 부화뇌동의 심리로 이것저것 雜文들을 주워 모아 급조해낸 저서들도 더러 있다.

한마디로, 정치인이 책을 쓴다는 데는 異議가 있을 수 없다.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政事를 다루고 잘못된 제도를 뜯어고치고 나라의 진로를 결정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소신과 시국관, 과거의 투쟁경력과 금후의 대국민공약 등을 엮은 저서 하나가 없대서야 체면유지에도 문제가 있다. 오히려 어떤 특정 정치인을 만 받치서 동경하고, 그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일반 유권자나 국민들은 그의 저서와 접함으로써 그의 정치적 커리어와 사상·신념·인간성 등을 간접적으로나마 짚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인의 저술활동은 도리어 권장할 만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의 투쟁경력이나 정치적 수완, 그리고 이미 他界하고 없는 정계거물이 나 정부고위층과의 정치적 사건 관련부분이나

에피소드 등을 다루는 과정에서 과연 얼마만큼 솔직하고 진실되게 표현하느냐 하는 것이다.

자서전이나 회고록의 집필에 사실과 虛構가 혼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마크 트웨인은 “자서전이란 그 사람의 몸을 감싸고 있는 의복과 단추에 지나지 않는다. 그 사람의 벌거벗은 전기를 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해 자서전 자체에 거부반응을 보였다.

사실 요즘 교보문고나 종로서적 등 대형서점엘 가보면 정치인, 종교인, 대학교수, 문필가, 재벌 할것없이 이름깨나 알려졌다는 인사들의 자서전·수기·정치평론·서간문·수상집 등이 수두룩하게 진열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정치인들의 저서가 압도적으로 많고, 대통령선거의 박두를 알리듯 金大中 金泳三 金鍾泌 등 한국정치의 주역이라 할 현역정치인들의 저서들이 단연 많이 눈에 띈다.

얼핏 생각나는 것만 추려보아도 가장 많은 저서를 낸 金大中씨의 책으로는 「민족의 새벽을 바라보며」 「행동하는 양심으로」 「김대중을 증서신」 「대중경제론」 등이 있고, 金泳三씨의 「나와 조국의 진실」, 李萬燮씨의 「제 3의 정치인」, 李哲씨의 「꺼질 수 없는 불길로」, 李鍾贊씨의 「민족의 종을 울리며, 민주의 탑을 쌓으며」, 朴燦鍾씨의 「부끄러운 이야기」 및 「광주에서 양키까지」, 金東英씨의 「타오르는 민주聖火」 등이 있다.